

경축 메시아절

전 세계 인류를 향한 메시지

“메시아절은 5천년 전부터 지켜온 인류의 명절이다”

여러분들이 메시아절을 기념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마음속에 메시아를 모셔 메시아절의 존재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구세주를 말하며 구세주는 바로 나를 구원하는 존재인 고로 내가 변하여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이 되어야 메시아가 왔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만 메시아를 영접하고 이웃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아니한다면 메시아가 이 세상에 나타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앞장서서 선구자적 입장에서 전 세계에 나아가 메시아의 이 진리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전하려면 입으로만 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마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행동과 마음으로 전하려면 메시아의 율법을 먼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 모두 메시아가 되어야

메시아의 율법이 자유율법이고 자유율법이 메시아의 율법인 고로 여러분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메시아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의 율법을 자신 속에서 완성시키면 그가 바로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메시아가 될 때에 메시아의 뜻이 완성됩니다.

메시아의 뜻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게 되어 있는 것이 메시아의 뜻을 완성시키지 아니하고 자신만 메시아라고 우러름을 받기 위해서



우측 아래 메시아의 이슬성신이 빛과 원형으로 나타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자유율법을 지키어 구세주가 될 때에 비로소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다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고로 여러분들이 마귀를 죽이는 법, 사랑을 이기는 법, 이 세상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법, 영생의 법이 되는 자유율법을 지키며 세상에 나아가 이 자유율법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짜 구세주, 가짜 메시아가 외쳤던 이 세상의 율법은 전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일일이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짜 구세주는 자기만이 구세주요 메시아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진짜 구세주는 자기만이 구세

주가 아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구세주가 되어야 한다고 외치며 세상 사람들을 다 구세주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구세주와 가짜 구세주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진짜 구세주가 오면 이 세상은 죽음이 없는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가짜 구세주는 죽음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죽음이 존재해 온 것으로 보아서 지금까지 자신을 구세주, 메시아라고 주장한 존재들은 모두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죽음의 세상을 그대로 두는 것이 가짜요, 죽음의 세계를 없애고 영생의 세계를 이루는 것이 진짜 구

세주입니다.

또한 진짜 구세주는 죽지 않는 비결의 학설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나 가짜 구세주는 죽지 않는 비결을 들고 나오지 못합니다. 진짜 구세주가 들고 나오는 죽지 않는 학설이 바로 자유율법입니다. 여기 승리제단은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 없고, 죽으려야 죽을 수 없는 자유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었다

인간은 원래 죽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이사람은 시간 시간 논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신이요 영생의 신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인 인간이 오늘날 죽게 되었을까요? 여기 승리제단에서 인간이 죽게 된 원인과 죽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세주 메시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러야 구세주요 메시아입니다.

그런고로 구세주는 죄의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인간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자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자입니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이요 구세주 메시아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되어야, 구세주가 되어야 죽지 않는 존재로 화하게 됩니다. 죽으려야 죽을 수 없는 자, 영생하는 자가 바로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메시아 초희성님의 말씀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46>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길은 많은 것을 가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그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그릇이 되려면 나라는 것이 조종하는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조종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그릇만 되면 은혜는 얼마든지 부어주는 것이다. 그런 고로 은혜를 간직하는 생활이 귀하지 은혜를 받는 것이 귀한 것이 아닌 것이다.*

이기는 삶

공덕은 만복의 근원

일반적으로 무엇을 베풀다고 할 때 보통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불교에서는 물질을 가지지 않고도 7가지 보시(七施)를 베풀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재물을 갖지 않고 베푸는 일곱 가지 보시라는 뜻으로 잡보장경(雜寶藏經)에 나오는 무재칠시(無財七施)의 내용이 있다.

첫째는 화안시(和顏施)로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띠고 부드럽고 정답게 대하는 것이다. 둘째는 언사시(言辭施)로 공손하고 아름다운 말로 대하는 것을 말하니 사랑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 부드러운 말 등이다. 셋째는 심시(心施)로 착하고 어진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자비심으로 이웃들에게 베푸는 보시행으로 우리가 늘 따뜻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도 소중한 보시이다.

넷째는 안시(眼施)로 호의를 담아 부드럽고 편안한 눈빛으로 대하는 것을 말한다. 부드럽고 안온한 눈빛 하나로도 충분한 보시가 된다. 다섯째는 신시(身施)로 몸으로 베푸는 것으로 남의 짐을 들어 준다거나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남의 일을 돕는 것이다. 여섯째는 상좌시(床座施)로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어 양보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비워주는 것을 말한다. 일곱째는 방사시(房舍施)로 편안하게 쉬 수가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라는 것이다. 굶이 묻지 않고 상대의 속을 헤아려서 도와주는 것이다. 방사시 대신에 찰시(察施)를 무재칠시에 넣기도 하는데 이 역시 굶이 묻지 않고 상대의 세세한 것도 살

펴 헤아려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운이 좋은 사람이 이길 수는 없다는 말이 있다. 운칠기삼(運七技三)이라고 하였듯이 운이 칠 할 이고 재주가 삼 할이라는 뜻의 이 말은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노력을 그리 들이지 않았는데도 아주 일이 잘 성사되었을 때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만큼 운이라는 것이 따라주지 않으면 결코 나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성취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다행히 지금 좋은 대운(大運)이라도 언젠가는 사라진다. 그래서 운(運)이라는 것은 움직일 운(運) 자를 쓰며 늘 곁에 머물러 있지 않고 비뚤다. 그래서 좋았던 사람은 나빠지고 나뉘었던 사람은 좋아지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좋은 운을 부르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공덕(功德)에서 온다. 바로 좋은 일을 하여 쌓은 업적과 어진 덕을 말한다. 공덕을 쌓은 사람은 자신의 사주팔자도 뛰어넘는다. 관상(觀相) 또한 뛰어넘는다. 그래서 사주팔자 위에 관상이며, 관상을 만드는데는 심성(心性) 즉 심상(心相)이다. 그런데 심성은 타고 나는 법이다. 그렇다면 복을 받는 사람은 타고 난다는 말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심성 즉 심상은 후천적으로도 만들 수 있다. 바로 덕(德)을 쌓는 것이다. 그렇다면 덕이란 무엇인가? 바로 베푸는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그것이 공덕(功德)을 쌓는 것이다. 바로 잡보장경에서 말하는 일곱 가지 보시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덕(德)은 만복(萬福)을 짓는다고 한 것이다.*

메시아의 어원과 감로

“메시아(messiah)”는 원래 히브리어 (mashiah)인데 ‘기름을 붓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되었고, 나중에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후에 로마시대에 예수의 출현으로 메시아 개념은 새로운 변화를 입게 되는데, 예수교인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그들의 경전이 결집되는 과정에서 메시아는 그리스어로 표기되었고, 메시아는 그리스어에서 기름을 붓다는 뜻의 어근으로부터 유래된 명사 ‘그리스도’로 번역되고, 이것은 예수교인들에 의해 거의 예수만 가리키는 호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히브리어 마쉬아흐(메시아)의 그리스어 역어(譯語)였고, 히브리어 메시아가 유대민족의 전통에서는

사울왕 및 다윗왕 등을 포함하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었으므로 ‘메시아’를 예수에게만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한국메시아 운동사, 8-11쪽 발췌)는 주장도 있다.

메시아와 마이트레아

메시아는 미트라에서 마이트레아, 메시아, 미르코로 어원이 변천되어 왔다. 즉 메시아와 미르코는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유대교인, 예수교인들과 불교인들이 말하는 인류를 구원할 존재는 동일한 한 분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각 종교를 믿는 신앙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종교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존재가 나오지 않을까

막연하게 추측하고 있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한 책이 바로 우리나라 위대한 예언가 격암 남사고 선생이 기록한 격암유록이다. 격암유록 은비기에 “儒佛仙三各人出(유불선삼각인출) 未復合一聖一出(말복합일성일출)” 즉 유교, 불교, 기독교에서는 말세에 인류를 구원할 주인공이 각각 유불선 삼교를 합일한 한 분의 성인이 마지막에 나오신다는 뜻이다. 유불선 삼교를 합일한 한 분의 성인이 나온다는 표현에 주목하기 바란다. 격암유록은 이처럼 성경, 불경 등의 경전에 비하여 상당히 앞선 예언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메시아, 마이트레아의 증표, 이슬

지금 이 지구상에는 자신을 스스로 미르코, 구세주, 승리자라고 칭하는 자들이 매우 많은 것이다. 우리나라에만도 수백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은 저 나름대로 자신이 주인공이라는 근거를 댈 것이다. 그러한 근거들은 어찌 보면 너무 다기(多岐) 다양하여 주인공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다소 헷갈릴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이나 불경, 격암유록과 같은 경전에 공통적으로 주인공의 자격으로 언급되어 있어야 객관성을 확보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경전이 주인공의 증표로 거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슬’이다. 이슬을 가지고 나오지 않은 자는 절대로 주인공이 될 수 없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승리자(구세주 메

우측 아래로 연결



경축

메시아절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제단

2022년 12월 25일

시아에게 이슬이 되어 함께한다고 호세아서 14장 15절에 기록하고 있고, 불경은 열반경을 비롯하여 범화경 등에 감로(甘露)를 들고 미륵불이 나온다고 하였으며 - 여기서 감로(甘露)는 단 이슬을 말한다 - 격암유록은 정도령이 감로(甘露)해인(海印)을 들고 나온다고 말하고 있다.

이슬의 실체를 모르면 주인공이 아니다

성경과 불경, 격암유록에서 거론한 ‘이슬’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모르는 자들은 결코 주인공이 될 수 없다. 이슬은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의 영이다. 이슬이 나오기 전에 이 세상은 마귀에 의해 다스려졌다. 마귀는 사랑의 신이므로 인류를 죽음

으로 몰고 갔으며 온갖 재난과 환란을 일으켰다. 그렇다면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의 영은 어떤 존재인가? 마귀가 갖고 있던 모든 권세를 빼앗아 쥐고 우주를 마음대로 요리하는 존재이다.

즉 전지전능의 영이요 무소불위의 영이다. 또한 이슬은 사랑의 신을 죽여 없애는 생명의 영이다. 따라서 이슬을 내리는 존재가 메시아요 마이트레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슬을 내리는 메시아는 오직 승리제단에만 계시지 다른 곳에는 안 계시다. 인류는 승리제단에와야만 메시아의 은총을 입어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을 원하는 사람들은 어서 와서 메시아의 은혜를 받기를 바란다.*